



Chapter 14.

기도 응답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answered prayer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찬송 425 장/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성경 : 눅 1:5-13]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In the time of Herod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jah; his wife Elizabeth was also a descendant of Aaron. Both of them were upright in the sight of God, observing all the Lord'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blamelessly. But they had no children,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and they were both well along in years. Once when Zechariah's division was on duty and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The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at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When Zechariah saw him, he was startled and was gripped with fear.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ohn. he was chosen by lot,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to go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And when the time for the burning of incense came, all the assembled worshipers were praying outside.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할 차례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자신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John the Baptist's father, Zechariah, was a priest, and his mother, Elizabeth, was a descendant of Aaron. They were people who prayed a lot. They were old and too old to have children. When it was Zechariah's turn to burn incense and he entered the temple, an angel of God told him that he would have a child. Zechariah thought that it would be difficult because they were too old. Answered prayers are accomplished beyond human thought. The possibility of answered prayers lies with God.

1.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Transcends the human condition.

(눅 1:6-7)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Both of them were upright in the sight of God, observing all the Lord'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blamelessly. But they had no children,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and they were both well along in years.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Zechariah and Elizabeth were righteous and kept the commandments and ordinances blamelessly. They were both old. Being old means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have children in the future. The power of prayer works beyond human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2.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God is working.

(눅 1:8-9)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Once when Zechariah's division was on duty and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he was chosen by lot,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to go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된 것은 제비를 뽑아서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2만 명이고 한 반열에 8백 명입니다. 그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평생 한 번도 성전봉사를 못 하는 제사장도 많았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 것은 제비뽑아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이 잘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Zechariah was a priest. He burned incense in the temple of Jerusalem. He was chosen by lot to enter the temple and burn incense. At that time, there were 20,000 priests, and each division had 800 men. One person was chosen by lot to enter. There were many priests who never served in the temple. Zechariah's entering the temple and burning incense may seem like a coincidence, but it was God's doing. To those who pray, things may seem to go well by chance, but God does everything.

3.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The sound of prayer was heard by God.

(눅 1: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ohn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들려졌다는 것은 소리를 들었다는 말과 다릅니다.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쪽이 반응한 것입니다. 소리가 들려진 것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As Zechariah was burning incense in the temple, the angel of God said, “Your prayer has been heard.” Being heard is different from hearing a sound. Hearing a sound means that the person hearing the sound has responded. Being heard means that even if you don't want to hear it, you will be heard. The prayers of the saints cannot be unavoidable to God. God will definitely hear the prayers of the saints.

(행 10: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Cornelius stared at him in fear. "What is it, Lord?" he asked. The angel answered, "Your prayers and gifts to the poor have come up as a memorial offering before God.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2025 토론토 강림교회 청년부 #2 (2025.03.16)

When Peter went to Caesarea and preached,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Gentiles as well. Prayer is something that God does entirely. Prayer is God's work. When we pray, God's will is done.

4.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Answered prayer is a miracle.

(눅 1:18-20)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인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Zechariah asked the angel, "How can I be sure of this?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well along in years." The angel answered, "I am Gabriel. I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and I have been sent to speak to you and to tell you this good news. And now you will be silent and not able to speak until the day this happens,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y words, which will come true at their proper time."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The angel of God said that he would have a son, but Zechariah said, "I am old and my wife is old. It is impossible for them." The angel said that he would be mute until the day this happens. The answer to prayer is a great power and miracle of God that is hard for people to believe. Prayer works only with the power of God.

[나눔]

1.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한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기도제목이 교회와 공동체의 소망이 되기 원하는 제목들을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was not only an answer to the personal prayer of one family, but also a hope for all of Israel.

In the same w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topics that I would like my prayer topics to become the hope of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bout God's call to us to a place of Lenten prayer.

2.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약속을 믿지 못하므로 아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한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깊은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Zacharias was dumb until the birth of baby John because he did not believe the angel Gabriel's promise. Have you ever experienced deep silence before God's word and promise? Please share with us. Let's share our experiences of God being with us as we pray and focus for a long time and seek His will.